두레생협 자원순환 가이드북

플라스틱은 줄이고
생명은 살리고
미래는 지키자

두레생협
www.dure-coop.or.kr

ㅁㅣㅅㅔㅍㅡㄹㄹㅏㅅㅡㅌㅣㄱ.indd 1 2018. 12. 27. 오전 11:

목 차

01 플라스틱 시대의 포장 쓰레기 **04**

02 플라스틱은 어디로 가나 **06**

03 사라지지 않는다 **10**

04 미세플라스틱 오염 **13**

05 문제 해결의 1순위는 생산단계의 감량 **15**

06 1회용 플라스틱 제품·포장재 규제 강화 필요 **18**

07 생협 매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려면 **21**

08 두레생협과 함께 실천하자! 플라스틱 줄이는 생활의 지혜 **25**

미세플라스틱.indd 2-3 2018. 12. 27. 오전 1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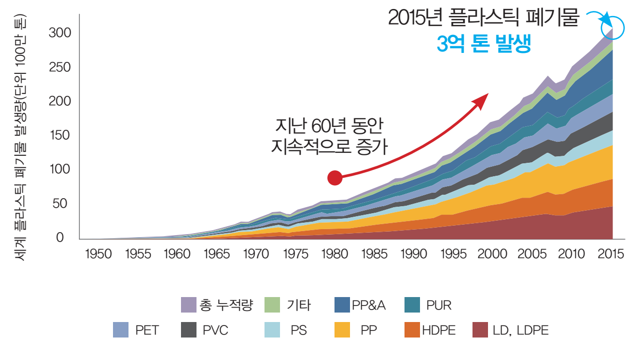
01

플라스틱 시대의 포장 쓰레기

인류의 24시간, 모든 분야에서 플라스틱 제품이 사용된다. UN에 따르면 '매년 4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생산'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상품의 포장재였다. 포장재는 물품을 사는 순간 쓰레기가 되는 1회용품이다. 당연히 플라스틱 쓰레기 중 가장 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 2015년의 경우 포장재로 사용된 플라스틱은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의 36%에 달했다. 또한 2015년 전 세계에서 발생된 3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 47퍼센트가 포장재 폐기물이었다(UN environment, 『SINGLE-USE PLASTICS』,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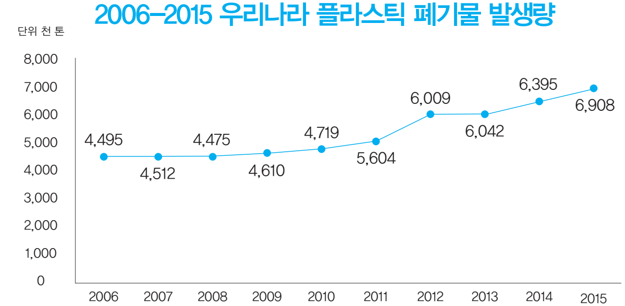
한편,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690만 톤이었고 1인당 135.4kg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했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평균 6.4%씩 증가하고 있

1950-2015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출처: Geyer, Jambeck, and Law, 2017.를 UN(『SINGLE-USE PLASTICS』, 2018.)이 편집

2006-2015 우리나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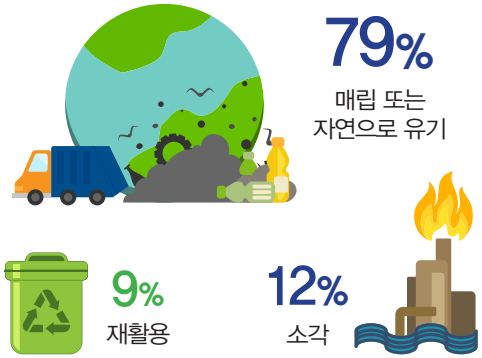
출처 : 환경부, 2018.

ㅁㅣㅅㅔㅍㅡㄹㄹㅏㅅㅡㅌㅣㄱ.indd 4-5
2018. 12. 27. 오전 11:45

다. 한편 우리나라의 1인당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5년 기준으로 61.97kg으로서 조사 대상인 세계 63개국 가운데 2위였다(EUROMAP, 2017).

02
플라스틱은 어디로 가나

지금까지 생산된 모든 플라스틱들의 행방



출처: UN environment, 『SINGLE-USE PLASTICS』, 2018.

ㅁㅣㅅㅔㅍㅡㄹㄹㅏㅅㅡㅌㅣㄱ.indd 6-7 2018. 12. 27. 오전 11:45

UN이 파악한 바에 따르자면, 지금까지 생산된 플라스틱 쓰레기 중 79%는 자연환경 속에 배출(매립 포함)되었고 12%는 소각되었으며 단 9%만이 재활용됐다. 2015년의 경우, 세계적으로 '포장재 플라스틱 폐기물'은 1억4100만 톤이 발생됐는데 이중 14퍼센트만 재활용됐을 뿐, 14퍼센트는 소각, 40퍼센트는 매립, 나머지 32퍼센트는 바다를 비롯한 자연계에 그냥 버려졌다(World Economy Forum, 2016).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발생한 우리나라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690만 톤 가운데 재활용량은 411만 톤(59.5%)이었고 소각량은 244만 톤(35%)이었으며 매립량은 34만 톤(5%)이었다.

03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모양이든 만들 수 있고 가볍고 튼튼한 물성 덕분에 플라스틱은 세계를 정복했다. 그러나 그 튼튼한 물성은 사실 재앙이다. 플라스틱은 자연계에서 무해한 수준으로 분해되는 데 500~1000년이 걸린다. 플라스틱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납사) 등 정유 부산물에 비스페놀A, 노닐페놀, 프탈레이트 등과 같은 플라스틱에 특별한 성질을 부가하는 화학물질을 섞어 만든다. 당연히 소각할 때 대기 중에 유독성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다. 100% 안전한 소각은 불가능하다. 매립해도 긴 수명 때문에 플라스틱은 오랜 세월 토지를 오염시킨다. 오늘날 더 큰 문제는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이다. 바다 쓰레기가 된 플라스틱은 해류를 타고 바다의 중심부로 모여든다. 2018년 현재 북태평양에는 한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존재한다.

ㅁㅣㅅㅔㅍㅡㄹㄹㅏㅅㅡㅌㅣㄱ.indd 8-9 2018. 12. 27. 오전 11:45

플라스틱 폐기물의 자연분해기간

담배꽁초(필터)
15~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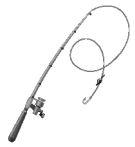
비닐봉투
50~500년

스티로폼 포장재
50~500년

페트병
500년 이상

1회용기저귀밴드
600년

낚시줄
600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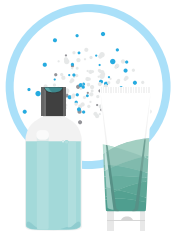


*출처: UN, 환경관리공단 등 국내외 공기관 자료 기반 편집

04 미세플라스틱 오염

치약이나 화장품 등에 특수한 목적으로 인공적인 미세플라스틱을 만들어 넣은 것들이 1차 미세플라스틱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등 1차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바다에 흘러든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서로 부딪쳐 점점 더 잘게 부서져 크기 5mm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이 된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100만분의 1m, 10억분의 1m 수준의 더 작은 크기로 계속 쪼개진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쪼개져 만들어지는 2차 미세플라스틱은 여전히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특수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제조해
상품에 첨가되는
1차 미세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indd 10-11 2018. 12. 27. 오전 11:45

알바트로스(신천옹)의 번식지인 북태평양 미드웨이 섬에서
부모가 먹이로 오인해 먹고 새끼에게 다시 먹인 플라스틱
때문에 죽은 알바트로스 새끼 ©Chris Jordan, CC BY 2.0

미국 플로리다 바다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조각들.
점점 더 잘게 부서져 인체 세포가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미세플라스틱으로 쪼개진다
©Florida Sea Grant CC BY-NC-ND 2.0

크기에 따른 플라스틱 폐기물 분류

명칭	크기	비고
매크로 플라스틱	길이와 지름 25㎜ 초과	바다 표면 부유
메조 플라스틱	길이와 지름 25㎜ 이하	바다 표면 부유
마이크로 플라스틱	길이와 지름 5㎜ 이하	일명, 미세플라스틱, 바다표면과 심해 부유
나노 플라스틱	길이와 지름 1㎛ 미만	㎛(100만분의 1m), 바다표면과 심해 부유

* GESAMP(유엔 전문가 자문 그룹)의 2015년 정의

마이크로나 나노 수준으로 작아진 플라스틱 조각은 세포벽을 뚫고 뇌와 간 등 인체 내 장기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UN, 2016). 생물체가 먹거나 흡수한 미세플라스틱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미세플라스틱이 독성을 띤 화학물질과 붙어있다는 점이다.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프탈레이트 등의 유독화학물질이 미세하게 쪼개질 때 바다로 배출되기도 하고 반대로 바다에 유기된 잔류성 유기화합물 같은 다른 유독화학물질에 흡착되기도 한다. 이렇게 유독화학물질이 붙어있는 미세플라스틱, 나노플라스틱을 먹은 플랑크톤을 다시 어류들이 먹고 그 어류를 바다새를 비롯한 상위

미세플라스틱.indd 12-13 2018. 12. 27. 오전 11:45

서해안에서 잡힌 아구의 뱃속에서 페트병이 나왔다
ⓒ이정현

포식자들이 먹는다. 그리고 그 모든 먹이사슬의 정점에 인간이 있다.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홍합, 굴, 어류 등 식탁에 오르는 거의 모든 해산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다. 2018년 10월 오스트리아환경청(EAA)은 유럽과 아시아 국적 조사 대상자 전원(8명)의 변에서 50~500㎛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미세플라스틱 인체 오염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05
문제 해결의 1순위는 생산단계의 감량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대처하는 최우선 과제는 재활용이 아니다. 그 전에 플라스틱 제품 자체, 그리고 가장 많은 폐기물을 내놓는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여야 한다. 이는 생산과정의 문제다. 분리배출과 수거, 재활용은 소비 이후의 문제다. 생협 조합원으로 대표되는 녹색 소비자들이 생산과정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라고 생산자와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두레생협은 2018년 6월 '포장 저감화 TF'를 구성하고 플라스틱 포장재 감량을 위한 디자인 개선 등 생산단계에서 플라스틱 감량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또한 일부 품목에만 제한된 벌크 판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생협의 플라스틱 줄이기가 확대되려면 어떤 정책 변화와 제도 정비가 필요할까?

ㅁㅣㅅㅔㅍㅏㅣㄹㄹㅏㅅㅡㅌㅣㄱ.indd 14-15 2018. 12. 27. 오전 11:45

과일, 곡류, 채소 등 1차 농산물 벌크 판매는 허용돼 있지만 간장 등의 2차 가공식품, 세제와 샴푸 등의 세정용품 벌크 판매는 금지돼 있다. 합리적 소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벌크 판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함께사는길

06 1회용 플라스틱 제품·포장재 규제 강화 필요

유럽연합(EU)·미국·일본 등 세계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EU는 △플라스틱 면봉·1회용 플라스틱 식기·풍선막대 사용금지 △화장실용 위생용품 라벨표시 강화 △투기되기 쉬운 품목의 생산자책임(EPR)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별 1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국가	규제내용	규제대상	적용시기
벨기에	금지	경량 1회용 비닐봉투	2018
덴마크	금지	모든 1회용 비닐봉투	2018
아이슬란드	금지	모든 1회용 비닐봉투	2018

ㅁㅣㅅㅔㅍㅡㄹㄹㅏㅅㅡㅌㅣㄱ.indd 16-17 2018. 12. 27. 오전 1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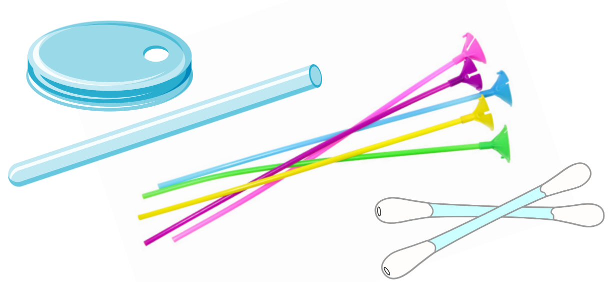
프랑스	금지	1회용 플라스틱 컵, 접시, 나이프, 포크 (생분해 및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제외)	2020
	금지	플라스틱 면봉	2020
	금지	경량 1회용 비닐봉투 (생분해 비닐봉투, 과일, 야채, 고기 및 생선 속비닐 제외)	2017
	금지	산화 분해 비닐봉투	2015
이탈리아	금지	비생분해 플라스틱 면봉	2019
	금지	경량 1회용 비닐봉투 (생분해 및 50마이크론 미만 두께의 바이오 기반 비닐봉투, 과일, 야채, 고기 및 생선 속비닐)	2016
	금지	담배꽁초 투기	2016
포르투갈	금지/제한	환경세 틀로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제한 규제 추진 중	2018년 제안
스코틀랜드	금지	플라스틱 면봉	2018 제안
	금지	1회용 빨대 금지	제안 중
스코틀랜드	금지	1회용 플라스틱 – 2030년까지 재사용 혹은 재활용이 되지 않을 경우 금지	2030
스페인 발레아레스	금지	모든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재활용이 되거나 생분해로 대체	2020
		1회용 물티슈는 화장실 변기로 내보내면 안 된다는 라벨 부착	2020
		식당에서 수돗물을 무료로 손님에게 제공함으로써 1회용 플라스틱 병 문제에 대응	논의 중

2018년 연말 우리나라 정부는 포장재등급평가제도를 신설하고 EPR 품목이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재질에는 분담금을 올리기로 했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다. 추가 규제가 필요한 것은 1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이다. 현재 대형마트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은 금지됐고 커피전문점 매장의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은 금지될 예정이다. 그 밖의 플라스틱 1회용품은 규제가 없거나 관리가 부실하다.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사용금지 규제'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ㅁㅣㅅㅔㅍㅡㄹㄹㅏㅅㅡㅌㅣㄱ.indd 18-19 2018. 12. 27. 오전 11:45

1회용 빨대·스틱·면봉·풍선막대 등의 규제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특히 1회용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 감량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지역조례'로 플라스틱 1회용품 규제 강화에 나서고, 지방자치단체에 규제 대상 플라스틱 1회용품을 '추가 선정할 권한'을 주도록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제도적 규제 강화에 앞서, 포장재 생산자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규제에 끌려 다니기보다 재활용이 쉬운 디자인과 재질을 선택, 개발하는 노력을 통해 오염의 첫 고리를 끊어야 한다.

시급히 규제돼야 할 1회용품들



*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규제되고 있는 1회용품은 컵·접시·용기·젓가락·이쑤시개·젓가락·수저·포크·나이프·식탁보 등이다. 계속해서 새로운 1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이 개발, 사용되는 구조를 막을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07 생협 매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려면

대량의 생활재를 소포장하지 않고 매대에 전시해 두면 소비자가 용기를 가져와 원하는 만큼 소분해서 구입하는 것이 벌크 판매다. 생협에서 플라스틱 포장 없는 벌크 판매를 더 확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1차 농산물 벌크 판매 확대

먼저 산지에서 매장까지 '다회용기를 이용한 유통·판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산지에서 매장으로 다회용기에 담아 운반된 농산물을 그대로 매장에서 벌크 판매한 뒤 다회용기를 반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류 효율화와 농산물의 이력관리 표시에 편한 '모듈화된 다회용기 개발', '다회용기 보증금제 개설'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런 시스템 구축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ㅁㅣㅅㅔㅍㅡㄹㄹㅏㅅㅡㅌㅣㄱ.indd 20-21 2018. 12. 27. 오전 11:45

노동자 유통판매조합인 미국 캘리포니아의 '레인보우 그로서리' 매장. 소비자들이 용기를 가져와 필요한 만큼만 소분해서 사간다. 과일, 곡물은 말할 것도 없고 음료와 세제류, 과자까지 다양한 벌크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여성환경연대

샴푸 등 세정제품의 벌크 판매 활성화

2018년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제조(수입)된 화장품을 소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개정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에게 판매업자 신고 △제조관리사 의무 고용 △판매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재에 명칭, 성분, 제조원 등을 기재할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벌크 판매(소분 구입)가 어렵다.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려면 △샴푸나 세정제 등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제품들'의 벌크 판매시, 제조관리사 고용의무 완화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에 라벨 부착 시 표시의무 준수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유리병 세척·재사용 활성화

우리나라는 주류와 일부 청량음료에 한해 빈병보증금제를 활용하여 유리병 재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용 음료나 식품의 용기는 대부분 1회용 포장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 생협의 경우, 여러 생협이 공동으로 가볍고 튼튼한 병을 개발하여 유통을 쉽게 하고 사용한 병을 모두 회수해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간장병, 우유병, 식초병 등 유리용기 모양을 통일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사용한 유리용기와 병뚜껑을 수거해 세척한 뒤 라벨과 뚜껑만 바꿔 재사용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재사용률을 크게 높인다.

재사용 시스템 구축은 개별 생협이 시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제도를 만들어 우리나라 생협들이 공동 이용하는 세척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보증금제 대상의 확대, 재사용 용기 사용의무 비율 설정, 재사용 유리병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별도의 지원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생협이 이들 제도를 사회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토대로 유리병 세척과 재사용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ㅁㅣㅅㅔㅍㅡㄹㄹㅏㅅㅡㅌㅣㄱ.indd 22-23 2018. 12. 27. 오전 11:45

08

두레생협과 함께 실천하자! 플라스틱 줄이는 생활의 지혜

장바구니를 들자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소비량 420장! 자연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 500년!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귀찮아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비닐봉투는 집에 오면 다 쓰레기통으로! 이런 현실 이젠 바꿔야 할 때! 팁 하나. 장바구니만 들고 다니지 말고 집에 굴러다니는 비닐봉투도 장바구니에 착착 접어 넣어두면 물기 있는 생활재 구입할 때 요긴하다.

필요한 만큼 담아가자!

두레생협은 매장에서 1차농산물 벌크 판매를 하고 있다. 담아갈 장바구니나 용기를 가져가서 필요한 만큼만 소분해서 구입하자. 음식쓰레기도 줄이고 플라스틱 포장재도 줄일 수 있다.

많아서 처치곤란 쇼핑백·보자기·장바구니는 생협 매장으로!

매장에 장 보러 왔는데 깜빡, 장바구니를 안 들고 왔다면? 그런데 매장에 다른 조합원들이 나눠 쓰자고 가져다 둔 쇼핑백, 보자기, 장바구니가 있다! 얼마나 고맙고 유용할까! 집에선 너무 많아 처치곤란한 애물단지 취급을 받을지 몰라도 두레생협 매장에선 고마운 공유, 재사용 물품이다. 나누

ㅁㅣㅅㅔㅍㅡㄹㄹㅏㅅㅡㅌㅣㄱ.indd 24-25 2018. 12. 27. 오전 11:45

면 커지는 공유의 마법을 실천하자.

배송박스의 축냉제, 깨끗이 씻어서 돌려주자!

개별나눔 배송박스에 담긴 냉장·냉동품은 축냉제와 같이 담긴다.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축냉제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쓰레기로 배출하지 말고 잘 씻어 배송박스에 도로 담아 공급지기에게 돌려주자. 조합원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고 두레생협은 축냉제 구입비용을 아낄 수 있다.

두레생협 연간 축냉제 구입비용

연도	2016년	2017년
금액	9,324,000원	4,032,000원

*축냉제 재질 변경=구입비용 하락, 사용량은 3배 증가. 재사용이 환경을 지키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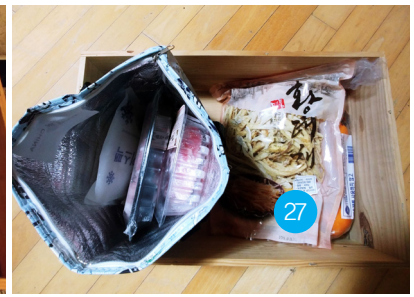
생활재 포장지는 재사용할 수 있다!!

잡곡 등 지퍼백 포장이 된 생활재들이 심심찮게 있다. 쓰고 버리지 말고 잘 씻어 말리면 지퍼백으로 충분히 재사용할 수 있다. 말림 채소류를 담거나 간단한 소분에도 유용하다.

2019년 개별나눔 공급박스 줄이자!

공급지기가 오는 날 얼굴을 보고 주문 생활재를 받으면 좋지만 그러질 못 하니 집 안에 스티로폼 공급박스가 쌓이다가 쓰레기로 버려진다. 주문 생활재가 올 때 집에 사람이 없다면 집에서 쓰는 아이스박스를 문 밖에 두자. 돌아오면 그 안에 주문한 생활재가 잘 담겨 있을 것이다. 두레생협은

집에 있는 빈박스와 아이스박스(또는 보냉장바구니)를 문 밖에 두면 공급지기가 스티로폼 공급박스에서 생활재를 꺼내 담아주고 간다. 귀가하면서 집 안에 들여 주문 물품 확인!



ㅁㅣㅅㅔㅍㅡㄹㄹㅏㅅㅡㅌㅣㄱ.indd 26-27 2018. 12. 27. 오전 11:45

'2019년 개별나눔 공급박스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조합원이 주인인 두레생협이 쓸 데 없이 박스 구입비용을 지출하게 만들지 말자. 플라스틱 폐기물을 늘리게 하지 말자.

두레생협 연간 공급박스 구입비용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114,957,000원	118,701,000원	167,262,000원

*'억' 소리 나게 늘어나는 스티로폼 공급박스 구입비용

재활용률 높이는 제대로 분리배출법

분리배출표시제도에 따르면 합성수지(플라스틱) 재활용품은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로 나뉜다. 페트(PET)는 음료수병으로 많이 쓰인다. 플라스틱은 강성을 지닌 제품이나 용기 형태의 포장재로 쓰인 것이다. 비닐류는 얇은 막 형태의 필름, 시트, 포장재들이다. 이 셋 모두 플라스틱이지만, 배출과 수거의 편의성을 돕고 재활용률 높이기 위해 3종으로 구분해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리배출표시가 비닐(보라)과 플라스틱(파랑)의 경우 표시색만 다를 뿐 HDPE, LDPE, PP, PS, PVC, OTHER 등으로 재질 분류가 같은 건 그런 이유다.

우리가 합성수지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 신경 쓸 것은 4가지다. △내용물을 비운다 △씻는다 △페트·플라스틱·비닐로 같은 재질끼리 모은다 △서로 안 섞이게 내놓는다.
재질은 제품과 포장지에 인쇄돼 있다.

두레생협 생활재 중에도 어떻게 배출할지 고민이 되는 제품(생활재)과 포장재가 있다.

▲참기름이나 소스 등 유리병에 담긴 생활재들—이것은 유리병에서 라벨을 떼어 재활용봉투에 버리고 플라스틱 마개와 유리병은 재질별로 따로 모아 분리배출한다. 몸체와 재질이 다른 것들은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떼어내 재질별로 배출한다! 하나 더, 유리병은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 안 씻긴 것은 재활용이 어렵다.

ㅁㅣㅅㅔㅍㅡㄹㄹㅏㅅㅡㅌㅣㄱ.indd 28-29 2018. 12. 27. 오전 11:45

▲김치, 육개장, 된장찌개 등이 담겼던 까닭에 꼼꼼히 세척해야 하는 포장재, 끈적거리는 내용물이 작은 비닐포장에 담긴 생활재 등-세척이 가능한 것은 잘 씻어 배출하고 깨끗하게 세척이 어려운 것들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내놓는다.

▲비닐코팅된 종이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부피를 줄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린다.

▲염색약 비닐포장재는 세척시 수질오염 우려가 크므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린다.

한편, 볼펜, 칫솔, 금은박지, 라면 스프봉지, 생선이나 정육 등의 포장종이 등은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합성수지류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표시

구분		표시도안
합성수지 재질	페트	페트
	플라스틱	플라스틱 HDPE / 플라스틱 LDPE / 플라스틱 PP / 플라스틱 PS / 플라스틱 PVC / 플라스틱 OTHER
	비닐류	비닐류 HDPE / 비닐류 LDPE / 비닐류 PP / 비닐류 PS / 비닐류 PVC / 비닐류 OTHER

ㅁㅣㅅㅔㅍㅡㄹㄹㅏㅅㅡㅌㅣㄱ.indd 30-31 2018. 12. 27. 오전 11:45

두레생협
www.dure-coop.or.kr

두레생협연합회는 1997년 설립된 이래 현재 29개의 회원생협과
두레생산자가 상호 협동을 통해 사람과 자연, 지역과 환경을
살리는 지역생명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초판 1쇄 2018.12.26
제작배포 두레생협연합회 www.dure-coop.or.kr

이 작은 책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을 위해 제작된 비영리 목적의 소책자입니다.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Printed with Saphira Eco : Non IPA
HEIDELBERG

PRINTED WITH SOY INK

MIX
Paper from responsible sources
FSC® C118587
www.fsc.org

이 책은 FSC®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와
식물성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여
친환경 무알코올 인쇄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ㅁㅣㅅㅔㅍㅡㄹㄹㅏㅅㅡㅌㅣㄱ.indd 32 2018. 12. 27. 오전 11: